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사회 보건 단체의 홍보활동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세미나 발표

(제 4 회)



이 관 영

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계몽활동이었다. 견협에서는 홍보활동의 적극화를 꾀하기 위해 본부의 홍보부와 지부의 홍보관을 중심으로 많은 홍보·계몽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생충관리사업의 초창기, 국민의 기생충에 대한 의식수준은 “기생충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된다”라는 식이었으며 기생충에 의한 경제적 손실 등은 전혀 생각하지도

60년대 초의 80%의 기생충 감염율을 10% 미만으로 감소시키고, 건강검사자수를 '82년도의 10만명에서 '86년도 110만명으로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기생충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한 기생충검사 유도를 위해 견협에서는 「기생충을 몰아내자」라는 표어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기생충 슬라이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 학교, 사업장, 농어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몽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뉴스시간에 계몽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고, 기생충검사에의 자발적 참여율도 향상되었다.

이것이 현재의 기생충감염율 10%를 실현시켰으며, 이러한 감소추세에 따르면 향후 수년 내에 기생충감염율 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간흡충에 관

한 국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의식수준의 고양을 위해 건협은 '85년 'KBS-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 각종 일간지에 간흡층에 관한 보도를 통한 계몽을 전개한 결과, '84년 17만명이던 검사자가 '85년 45만명까지 증가되었다. 이외에도 어린이 요충검사 유도를 위해 한국일보사 능과 합동으로 "기생충 퇴치 0% 운동" 캠페인을 벌이기도 해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처럼 감소되어가는 기생충감염율에도 불구하고 기생충관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첫째는 무검사투약의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매스컴을 통하여 많은 기생충 약이 선전되면서 정기적으로 약만 복용하면 모든 기생충이 박멸되는 것으로 생각해 불필요한 투약,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한다.

둘째는 회충이 곧 기생충의 전부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인식해, 요즘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기생충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농어촌의 비위생적 주거환경의 상존이다.

넷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생충감염율의 저하와 함께 고개들기 시작한 기생충검사의 무용론이다. 이러한 사고는 기생충감염율이 0%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0%를 달성했다'라고 성급하게 사고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기생충의 감염경로를 생각해 볼 때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고 본다.

정기적으로 약만 복용하면 모든 기생충이 박멸되는 것으로 생각해 불필요한 투약,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건강을 해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들은 현대 보건사업의 차원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소홀한 관리로 인해 기생충감염율의 재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건협의 기생충관리 홍보·계몽의 입장도 이런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다.

또한 건강관리사업, 즉, 성인병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보건 의식수준이 낮아 평소의 건강검사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드물며 신체의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검사보다는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어떠한 자각증상이 나타날 때면 이미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85년도 본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들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를 받기 전 자신이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는 대답이 전체응답자의 6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막연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율의 높은 비중을 성인병이 차지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